

이사야의 부흥(復興)

이사야 6장

이 명 직 목사(1890. 12. 2~1973. 3. 30)는 한국성경교회 사부로 존경받으시는 분이시다. 목사님은 성서학자로 신학자로 교육자로 설교자로 한국교회사에 큰 영향을 끼치셨다. 분단을 통하여 그분의 그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본다.

이사야는 유대 왕 웃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등 4대 걸쳐 예언활동(BC742-700년경)을 한 선지자이다. 그는 유대 왕궁을 자주롭게 출입하면서 왕을 위로하기도 하고 상계하기도 하였다.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이 이사야는 보냐세 왕에게 박해를 당하여 튼에 끌려 순교하였다(대 11:37).

이사야의 감상(感想)

웃시아 왕이 죽던 해(1-)는 이사야가 크게 경성함을 받은 동기가 된 해였다. 즉 웃시아는 국가가 크게 부흥되어 국부병강(國富兵強)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지 못

하고, 자신의 공로로 착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그는 외람되어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의 직분인 분향(焚香)을 자행함으로써 정교통재(政教統戡)를 경륜하려 할 때에 제사장 이사야가 분향은 왕의 직분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이니 왕은 범죄하지 말라하였으나 듣지 아니 하고 난입하여 분향하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노하시어 그 이마에 분능병이 발생되었다. 이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굽히 내어쫓으니 웃시아는 다시는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태자 요담이 정사(政事)를 대신 행케 되었고, 수년을 별궁에서 거처하다가 세상을 뒀다(대하 26:14-23). 이것

을 목격한 이사야는 죄악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개혁자 마틴 루터는 동행하던 젊은 친구가 벼락에 맞아 직사(直死)하는 것을 보고, 경성하여 하나님을 부르짖고 회개하여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한 평생 일하기로 맹세하였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남의 불행을 볼 때 경성함을 받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웃시야 왕의 죽음은 이사야에게는 충격적인 감상을 가지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

이사야의 기도

이때 이사야는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있었다. 물론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 기도 하였으나 이때 처럼 마음을 기울여 기도한 적은 없었다. 범죄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은 웃시야를 본 이사야는 큰 충격을 받아, 비로써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자기의 죄를 찾게 되었다. 기도가 여기에 이르게 되자 그는 열심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참 믿고 의지하게 되었다. 이사야가 지난 날에 기도의 경험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과 같은 기도의 경험은 처음이다. 기도는 영적인 큰 싸움

이다. 옛날 야곱이 압박 강변에서 낚시를 만나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성경의 내용은 기도의 경험을 묘사한 것이다(창 32장).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는 중 사탄에게 세가지 시험을 받으심과 겟세마네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피땀을 흘리신 것은 다 간절한 기도, 즉 영적 전쟁의 경험이다. 이와 같은 기도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거룩하심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직접으로 경험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다.

기도가 없는 곳에는 참된 회개가 없고, 참된 회개가 없는 곳에는 참된 부흥도 없다. 옛날 오순절의 부흥의 역사는 10일간 기도하는 가운데서 일어났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참된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신자 개인이 기도를 알지 못하고, 교역자도 기도를 등한히 하고, 교회도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다시 부흥될 가망이 없다.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어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목이 다 타서 전멸될 위기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일곱번 기도하여 큰 비가 쏟아져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생명을 회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나는 입술이 더러운 자”라고 하였다. 이것이 아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비결이다. 예로부터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자복이 없는 곳에는 겸손이 없고, 겸손이 없는 곳에는 사죄가 없고, 사죄가 없는 곳에는 부흥이 있을 수 없다.

복하고 이스라엘에 대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 자신에게 참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교회에 부흥을 원한다면, 영혼구원을 원한다면 기도해야 한다. 기도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능력이 있다.

이사야의 이상(異像)

“내가 분주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까지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여러 날개가 있어, 그 불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불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불로는 날며 서로 장화하여 가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사 6:1-3). 이사야가 본 것은 꿈이 아니라 영으로 그 이상을 본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들의 위엄이 엄숙하게 뵈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하며 심위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

면서 이사야는 새로운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이분으로써가 아니라 실존적으로 직각(直覺)하게 되었다. 우리의 기도 경험도 다 이러해야 한다. 물론 눈으로 무엇을

보고, 귀로 들은 것이 없을 지라도, 그 숭고한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직각한다면 경건한 태도와 독실한 신앙을 보유했을 수 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임재하심을 이와 같이 명백하게 깨닫는다.

이사야의 인죄(認罪)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다”(5-). 이사야가 이상(異像), 곧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면서 자기의 진상을 깨닫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깨닫지도 만나지 못한다. 캄캄한 밤중에는 물건을 볼 수 없지만 동편 하늘이 열리고 햇빛이 비추어 오면 작은 먼지라도 다 드러난다. 이와같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헤아릴 때에는 위대하고 성결하고 의

류고' 유식(有識)한 것 같은 착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털끝반치도 어두움이 없으신,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자기의 진상이 드러나게 된다. 저 욕을 보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는 세 친구와 변론할 때에 정결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고 의인도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으나, 하나님께서 직접으로 나타나 말씀하실 때에 비로소 자기의 무식과 위선과 불결함을 깨닫게 된다. 그는 그때서야 비로써 재를 무릅쓰고 회개함으로써 새롭게 은총을 입게 되었다(욥 42:1-6). 율법의 의로는 책망할 것이 없다고 자인(自認)하고 당당하게 예언활동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 성결하신 하나님 영광의 빛에 자기를 비추어 보는 동시에 자기의 죄악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비결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빛 앞에 섰을 때에 이사야가 깨달은 것은 자기의 입술의 더러움이었다. 이 입술의 더러움은 누구나 범하기 쉬운 죄다. 혹 입술의 죄가 작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런지 모르나, 그리스도의 신부는 입술이 성결해야 한다

(시 15 : 3, 계 14 : 5). 성결치 못한 사람은 두 가지 입술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즉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과 사람을 저주하는 입술이다(약 3 : 10).

이사야의 자백(自白)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에 자기를 비추어 자기의 불결함이 드러나게 되자 숨기지 않고 겸비(謙卑)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나는 입술이 더러운 자”라고 하였다. 이것이 아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비결이다. 예로부터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자복이 없는 곳에는 겸손이 없고, 겸손이 없는 곳에는 사죄가 없고, 사죄가 없는 곳에는 부흥이 있을 수 없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에 일어난 부흥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각각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을 때였다(태 3 : 5, 6).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에 일어난 부흥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함”으로서 일어났다(행 19 : 18). 사도 요한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일 1: 9-) 라고 하셨다.

이사야 역시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에 비로소 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 다윗이 범죄하고 자복하지 아니한 때의 경험과 자복한 후에 경험을 말한 것을 보면 더욱 분명하다. “내가 토로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유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자복하기 전 심령은 죽은 심령이요 자복한 후의 심령은 부흥한 심령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상(罪狀)을 아시지 못하심이 아니지만 자복을 명하시고, 자복을 기다려 부흥을 주신다. 여기에서 자복이라함은 천주교회 신자들이 신부(神父)에게 가서 하는 고해성사와 같은 것을 말함이 아니다. 참된 자복은 자기가 직접으로 하나님의 성결하심에 자기의 불결을 비주어서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가증하고 부러운가를 통감하는 것이다. 이럴 때에 비로써 탄식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회개의 눈물이 있게 된다. 이 자복은 정직하고 간사함이 없고 교만함이 없는 겸손

한 부르짖음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정직과 겸손을 사랑하신다(시 51: 10, 17).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기를 꺼려하고 싫어하는데, 이는 아직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 28 : 13).

이사야의 성결(聖潔)

이사야는 주의 영광 중에 자기의 불결한 진상이 드러나게 될 때에 숨기려하지 않고, 정직하게 부르짖어 자복하였다. 이때 “스람의 하나가 화자로 단에서 취한바 핀 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사 6 : 6) 하심으로 이사야는 새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이사야가 죄에서 성결함을 받은 것은 직접으로 “불”의 역사인 것을 주의해야 한다. 불은 즉 성신의 모형이다. 불로써 사람의 마음을 정결케 하심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통된 원리이다 (마 3 : 10, 행 2 : 3). 이는 사람의 마음에 깊이 깊이 박힌 죄는 불의 역사가 아니면 결코 정결케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불을 제단에서 취함과 같이 우리를 성결케 하는 불도 십자가제단(히 13 : 10)에서 취하여야 한다. 예수께서 십자가 제단에 희생의 제물을 드린 결과로 성령께서 강림하사(요 7 : 39)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다. 이 불로 사람을 정결케 하는 역사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간이다. 그러나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 일에 대하여 오랜 시간이 걸리는 줄로 생각하기도 하며, 혹은 사람의 공적인 수양과 단련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줄로 오해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써 순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다. 오순절 날에도 성령이 홀연히 임하신 결과로 모든 사람이 성령충만함을 받게 되었다(행 2 : 2). 바울에게도 빛이 홀연히 임하였고(행 9 : 3), 말라기에서도 그 역사가 홀연히 임할 것을 예언하였다(말 3 : 1). 성결케 하는 역사는 순간적이며 성결의 성취는 오랜 시간을 요한다. 또한 이 순간적 역사는 심히 완전한 역사로, 즉 일시에 허물을 제하고 죄를 속한 것이다. 적은 허물은 속하면서 큰 죄는 속하지 못하는 역사가 아니요, 큰 죄를 속하되 허물까지는 속하지 못함이 아니라, 무엇

이든지 죄에 속한 것은 다 소멸하는 성령의 역사이다. 혹은 허구한 시간을 허비함으로 성결하게 되는 줄로 알고 있다. 성결한 후에야 심령이 장성하고 결실이 완전하여 지는 것은 과실나무에서 구충(驅蟲)을 잘 한 후에야 결실이 완전하여짐과 같다. 영적인 해충인 죄는 불로써 정결케 할 수 있다. 만약 병적 상태에 있다면 영적인 성장은 고사하고, 죽을 때에 그 병을 그대로 가지로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이사야의 새 사명(使命)

이사야가 전에도 선지자가 아닌 것이 아니었지만, 이 때의 경험으로 그의 사명이 새로워졌다. 그러나 이사야가 성결의 경험을 한 후에 첫번째로 들은 음성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모든 영혼을 위하여 탄식하시는 음성이었다. 이때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 함으로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완전히 헌신하였다. 성결한 후 이사야의 사명은 새롭고 완전하고 실질적이었다. 누구든지 이사야와 같은 경험을 가진 자라야만이 사명을 가질 수 있다. (분히 이 성경은 어방석석의 성경 교집 제1권에 수록된 것은 본지 발행한 종교개혁사가 현대적인 표현으로 정리하여 옮긴 것이다.)

212